

# “스웨덴서 자랐지만, 내 뿌리는 이곳에 있어요”

조선대 등 주최 ‘입양인 간담회’ 열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서…50여명 참여  
광주·전남 출신 9명 각자 사연 나눠  
배경 공유도…“함께 돌아봐야 할 역사”

“제 조상들이 살아왔던 광주는 저에게 큰 의미이자 고향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15일 오후 광주 동구 소재 광주영상복합문화관 3층 클래스 F에서 열린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간담회에 참석한 해외 입양인 전자영(샤를로타 폰 세스·47·여)씨의 인터뷰 영상이 스크린에 비쳤다.

스웨덴으로 입양돼 2018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얘기를 하며 기억의 조각을 하나씩 꺼냈다.

1981년 9월18일 동구 계림동 대림상가 인근에서 발견된 전씨는 전남영아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다 1983년 스웨덴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그는 “처음 양부모를 만났을 때 코가 큰 모습이 낯설어 웃음을 터트렸었다”며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조상들의 터전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입양인과 광주의 만남’ 행사가 15일 오후 동구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예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이자 고향이 광주라는 점이 저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선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스웨덴 입양인 광주모임이 공동 주최하고,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해외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세대와 국경을 넘어 교류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스웨덴 입양인 9

명을 비롯해 시민·학생 등 50여명이 함께했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동을 세 번째로 많이 입양한 나라로, 현재 약 1만명의 한국 입양인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행사는 ▲개회사 ▲스웨덴과 한국의 입양 역사 소개 ▲입양인 개인 이야기 ▲패널 토론 ▲청중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입양인들의 성장 과정과 정체성의 고민, 당시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채석진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마리아 하이머 스웨덴 읍살라대 교수는 ‘스웨덴-한국/광주 해외 입양 역사’ 발표를 통해 “1960-1970년대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와 해외 입양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에서 온 이야기’ 이후: 뿌리 뽑힌 삶의 증언과 광주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준철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는 “당시 한국 사회에선 많은 아이들이 입양에 노출됐다. 그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자주 해외 입양이 이뤄졌다”며 “이는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조부모 등에 맡겨지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입양이 발생(?)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성찰하고 연대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후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참가자들이 해외·국내 입양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눴다.

1969년 스웨덴으로 입양된 김미선(엘리자베스 닐룬드·58·여)씨는 “스웨덴 입양아 중 광주 출신이 많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번 발표와 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커지고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형제·자매나 친척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채석진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입양인의 삶을 직접 듣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톡홀름 입양한인협회 소속 입양동포 9명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주성학 기자·이연상 수습기자

## ‘붕괴 위험’ 복구 주민들 “맹탕 설명회”

市 ‘지하철 2호선’ 중흥동 13개소 대상  
이주 대책·보상 계획 ‘주먹구구’ 분통

광주시가 복구 중흥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으나 충분한 대책과 계획을 가져오지 않아 못매를 맞았다.

15일 오후 5시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선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인근 노후건축물’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는 광주시가 지난 7월21일부터 9월18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인 광주역 뒤편과 중흥삼거리부근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D 등급 2개소, E 등급 11개소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날 광주시에 이주 대책과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우선 이주용 주택 26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13개소에 거주하는 세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어디에 누가 들어갈지 당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정

확한 입주 가능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보상에 대해선 손해보험을 통해 허용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한참 전 열린 설명회 때의 계획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광주시는 용역 결과는 나왔지만 각 등급에 대한 원인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2호선 공사 외 무슨 이유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일부 주민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린 후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과 관련된 사안의 책임을 복구정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돌리다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렇듯 이날 설명회가 약 1시간 동안 ‘총체적 난국’을 보이다가 마무리되자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주민들은 뭐라도 있겠지라는 마음에 오셨을텐데 제가 다 부끄럽다”며 “다음 번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설명회를 비공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에 공개로 전환했다. /안재영 기자

## 광주·전남 ‘캄보디아 실종’ 잇따라…총 8명

광양 30·40대 2명…6-7월 연락두절

광산·서부경찰에도 30대 1명씩 접수

광주·전남 지역 ‘캄보디아 실종’ 추정자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

0분께 해외에 나간 아들 A(30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광양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올해 6월 들어 가족과 소식이 끊겼다.

이 외에도 광양경찰서에는 올해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B(40대)씨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이날 광주 광산·서부경찰서에도 추가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실종자는 모두 30대로 각각 올해 1월과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 출국했으나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두절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광주·전남 지역 캄보디아 실종 추정자는 각각 5명, 3명 등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추가 실종 추정자 파악과 함께 외교부 등을 통한 소재 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 광주서도 ‘캄보디아 유인·감금’ 범죄 있었다

빌려준 돈 안갚자 결박·감시

최근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선배의 소개로 간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광주에서도 유사 수법의 이중(異種)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지난 4월에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2주 동안 채무자 B(20대)

씨를 캄보디아 모처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4월 캄보디아에서 후배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된 후 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약속한 기일까지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A씨는 그를 광주로 불렀다.

그러면서 A씨는 “캄보디아에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을 같이하자. 한 달 정도 일하면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이들은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캄보디아에서 B씨는 자신을 소개해준 A씨의 후배 등과 모처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원래 하려던 일을 당장 할 수 없다”며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말했다. B씨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들을 연결해 준 A씨의 후배도 범행에 함께하며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급기야 A씨는 자신의 후배에게 B씨의 휴대전화를 주며 “무슨 연락이 오는지 잘 감시하고 잘 때 도망갈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로 발목을 묶으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가 실제 이행되면서 B씨는 감금 생활을 하게 됐는데, 탈출 시를 전부터 수갑을 찬 채로 방범창에 묶여있기도 했다. /안재영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